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Mar. 08, 2026 (통권 1097호)

오늘의 말씀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걸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